

‘눈과 얼음의 축제’, 내년 2월 세계인 이목 평창으로 쏠린다

[평창 G-100]

평창동계올림픽,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00여 개국 참가 102개 세부 종목 금 사상최다

눈과 얼음의 축제 2018 평창동계 올림픽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평창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9일~25일까지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서 개최된다. 패럴림픽 대회는 3월9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2011년 7월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IOC 총회장 연단에 선 자크 로게 당시 IOC 위원장이 개최 도시 발표에서 ‘평창’을 외쳤다.

캐나다 밴쿠버, 러시아 소치에 막혀 연달아 고배를 마셨던 평창은 3수 끝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됐다.

평창은 두 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 치밀하고 철저한 유치 준비와 함께 정부 강원도 KOC, 재계 등 각계 각층이 전 방위적 유치활동을 펼쳐 동계올림픽 유치를 따낸 것이다.

어렵게 대회 유치를 성공한 만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개최 도시 평창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올림픽이 개막했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운영준비 역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조직위의 모든 업무가 경기장 및 대회 시설 중심 체제로 전환중이다”고 말했다.

모든 경기장도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다.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스템 최종 점검만 하면 당장 경기를 치를 수 있다.

대회 불업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아직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배우 이영애와 박보검 등 한류 스타, 피겨여왕 김연아를 이용한 홍보영상 홍보 체험관 콘서트 문화축제 등으로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11월 1일 그리스에서 개최된 성화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100여 일 간 전국을 무대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조직위는 대회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많은 성원을 당부했고, 기

업의 후원금과 기부금 등 적극적인 대회 지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안전 올림픽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최근 북한의 핵도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 고조와 테러 예방을 위해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했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31일 태릉선수촌에서 D-100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이 자리에 참석해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진한다.

한국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인 종합 4위에 도전하고 있다. 다소 높은 목표지만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주종목인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을 필두로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100여 개국이 참가해 총 15종목에서 102개의 세부 종목에서 금메달을 놓고 다툰다.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다 금메달이 걸린 대회다.

대한체육회 역시 선수들이 경기 당일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의 훈련장을 찾아 선전을 당부하기도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1998년 서울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에 지어진 평창 올림픽 플라자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올림픽 최초 행사 전용 개·폐회식장이자 24만㎡ 부지 내 지하 1층 지상 7층의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5만8790㎡의 연면적(건축면적 2만6300㎡)에 3만5000석의 가변석을 갖췄다. 무대는 직경 72m의 원형으로 공연에 용이하게 건설됐다.

림픽 이후 3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다. 세계적인 이목

이 평창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평창과 대한민국에 위대한 유산을 남기기를 기대해본다.

입장권 내달부터 전국 현장 판매... ‘고전미+역동성’ 살려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입장권.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이 11월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현장 판매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그동안 온라인 판매에만 한정됐던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과 종목별 입장권을 오는 11월부터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시청, 강원도청, 강릉시청 민원실에 마련될 메인티켓센터에서 현장 판매를 처음으로 시작한다. 여기에서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입장권 수령이 가능하다.

3일부터는 인천·김포공항 아울렛(Outlet, 티켓센터)에서 판매에 들어가고, 전국 19개 KTX 역사 아울렛(관광안내소)에서는 6일부터

홈프린팅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조직위는 입장권 현장 판매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온라인 구매자 중 입장권 배송 신청자에게 순차적

- 조직위 “오프라인도 판매”
- 온라인 구매자 수령 가능
- 모바일 입장권, 사상 최초
- 입장권 소지자, 혜택 다양

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1차 온라인 판매(2~6일) 구매자 중 기념입장권(경기입장가능) 배송 신청자는 1일부터 2차 온라인 판

매(9월5일~) 일반입장권 배송 신청자는 8일부터 배송이 이뤄진다.

입장권은 기념 입장권 28종(개·폐회식 2종, 종목 26종), 일반 입장권 1종으로 기념입장권은 한글 눈꽃과 ‘종목 픽토그램’ 등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전통성과 고전미, 겨울 스포츠 축제의 화려함, 역동성, 다양성 등을 담았다.

개·폐회식 기념입장권은 개막과 폐막에 대한 잠재적 기대감을 나타내는 골드와 실버 색상의 화려한 한글 눈꽃과 동계스포츠를 상징하는 새하얀 배경을 입체감 있게 표현했다.

경기 기념입장권(26종)은 경기의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종목별 픽토그램과 고유 색상을 활용해 동계올림픽의 화려함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입장권(1종)은 모든 종목(15개)의 픽토그램을 사용했다.

일반입장권은 제품매체에 따라 종이입장권과 전자입장권(홈프린팅, 모바일)의 3가지 유형으로 구

성된다. 모바일 입장권은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다.

조직위는 입장권의 무단복제 방지를 위해 암호화된 QR코드를 비롯해 홀로그램 UV프린팅 등 보안 기술을 적용했으며, 구매자 이름과 좌석 위치, 좌석 등급, 입장권 약관 등을 표기했다.

입장권 소지자에게는 올림픽 문화행사 관람은 물론 KTX 조기 예매와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휴게소 서비스, 셔틀버스 무료 이용, 일부 올림픽 후원사 상품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지구촌 최대의 겨울 스포츠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 생애 다시 오기 힘든 메가 이벤트”라며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의 눈과 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스피드와 화려한 묘기에 국민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뉴스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